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2인 체제... 카카오, 내부감시 강화

2개사, 26일 정기주총 주요안건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두 회사는 이번 주총안건으로 임원진 보직 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추진하며 경영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될 인선을 보면 각사가 우선한 과제가 엮인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함께, 최수연 대표의 3년 연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내이사 채선주 ESG 정책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네이버는 이 GIO와 최 대표 2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김남선 CFO도 네이버를 떠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신임 CFO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 창업자로서 그동안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영일선 복귀는 7년만의 일로, 이 GIO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정 검토를 시작하자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뉴시스

**네이버, 이해진 GIO 사내이사 선임 최수연 대표 3년임 안건 등 예정 사내이사 채선주 대표 임기만료**

최초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더불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온 서비스 AI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의 이번 주총은 이해진 GIO의 경영 복귀와 CFO 교체가 핵심이다. 이 GIO가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창업자 주도의 장기 전략 수립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최 대표의 연임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기존 AI·글로벌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도 엿보인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카카오, 이사회 기존체제 유지 내부감시 강화로 리스크 관리 이사진 보수 한도 80억→60억**

특히 김남선 CFO의 퇴임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전략과 맞물려 해석된다. 김 CFO는 네이버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등 글로벌 진출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그동안 이해진 GIO와의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네이버가 신임 CFO 인선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재무·투자 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카카오는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교수는 현재 카카오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교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이사진 재정비 외에도 이사진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이고,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도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주총에서 카카오는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를 새롭게 선임하며 내부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가 처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진 보수 한도를 낮추거나 주총 소집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추가한 것은 주주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유플러스 월 최대 6600원 저렴 '신혼 인터넷 요금제'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프리미엄 안심보상' 요금제에 비해 월 이용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IPTV뿐만 아니라 유·무선 결합도 가능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예비 및 결혼 3년 이내의 부부라면 누구나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혼인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예비부부는 청첩장 사본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프로모션요금제인 만큼 8월까지지만 신청을 받는다. /김서현 기자

# AI·바이오·반도체 등에 6.8조...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국가전략기술 2025 시행계획 의결 과기부, AI전환 가속화 등 변화 반영

12대 전략 기술, 50개 세부 기술에 6.4조 투입... 전년 대비 30% 증액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반도체,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약 6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과학기술 권력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로 22개 부·처·청이 공동 수립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최근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확산에 따른 사업화 및 기업 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 중심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에 전년 대비 30% 증액된 6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비 R&D 사업도 추진된다.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5건이 신규 착수된다. 기존에 R&D 지원이 부족했던 수소·첨단 로봇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과 '딥테크 TIP S'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 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다.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 분석,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

한 인재 성장 경로 추적 관리가 도입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맞춤형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한 협력도 강화된다. AI·양자·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과 국제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해 '10대 국방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형 프로젝트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 사업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부담을 줄이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모델들이 KT 통신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인구 흐름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KT

## KT 지역별 인구흐름 분석 인사이트 플랫폼 선포

KT가 통신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인구 흐름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정하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리뉴얼했다고 12일 밝혔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KT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KT 빅사이트' 플랫폼의 '생활인구분석솔루션'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단면적 데이터 분석만 가능했으나, 이번 플랫폼은 AI 기술로 시간대별 사람들의 생활 위치·이동 목적·이동 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등을 종합 분석한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총 4종의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여기에는 ▲출발·도착 기점별 이동 목적과 이동 수단을 분석하는 '생활이동데이터'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분석하는 '생활인구' ▲특정 시점·지역에 중복을 허용한 인구이동량을 분석하는 '유동인구' ▲시·군·구 단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분석하는 '체류인구'도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 SK C&C, 프롭티어에 AI 매니지드 서비스 네이버, AI기반 개인화상품 추천 앱 출시

SK C&C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서비스 기업인 프롭티어에 AI 클라우드 관리(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인 프롭티어는 2000만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부동

산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산업을 의미한다.

프롭티어는 현재 ▲전국 2만6000여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디지털 AI 중개 업무 솔루션 '이실장' ▲임대주택 거래 지원 월세 서비스 '뉴렌트' ▲거래 사고 예방 '안심 케어 서비스' ▲부동산 매물 정보 플랫폼 '타운' 등의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현정 기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네이버(이하)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탑재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12일 출시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방대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자의 선호도, 과거 구매 이력, 맥락 및 의도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관심이 갈 만한 상품을 우선 추천하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을 제안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와 함께 'AI 쇼핑 가이드'와 '발견'도 새롭게 선보였다. AI쇼핑 가이드 기능은 노트북,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군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화 추천 기능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